



오 삼 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프리카-브라질-한국 노동운동교류 참관기

자본의 세계화와 그것이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최근 각국 노조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의 세계화'로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세계화가 이은 추구 목적 하에 이미 오래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하면 노동의 세계화는 아직 개념조차도 낯선 상황이다. 노동의 세계화라기 보다는 국제적 연대의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대는 노동계급 공동의 필요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는 먼저 스스로의 국가공동체 속에서 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해 온 살아 있는 인간이다. 이점에서 노동계급의 국제연대도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없이는 그야말로 노동기구간의 외교적 행사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제교류는 이 점에서 세계화의 도전에

대하여 노동계급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연대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9월 중순 남아프리카의 디체라 (Ditsela) 주최 교육활동가 대회와 11월 초 독일 베를린 근교 카진에서 열린 한국, 남아공, 브라질의 민주노동운동 3국연대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국제교류의 경험이 일천한 필자에게도 이 두 번의 교류참가 경험은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의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제교류와 연대 활동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필자의 느낌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Ditsela: 살아 숨쉬는 노동교육

디체라의 노동교육 워크샵에 처음 참

여해 본 필자의 경험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워크샵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는 남아공의 2백명 가까운 교육담당자들이 모여 새로운 노동교육 방식을 직접 참여하여 실험해보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개방적인 워크샵 진행방식이었다. 교육의 성과를 미리 예정하고 그 틈에 맞추려는 시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디젤라 소장인 크리스 보너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워크샵의 조직자들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참가자들의 자발성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의 자발성과 창조성, 혹은 어느 발표자가 표현했듯이 “집단적 창조 에너

지의 힘”은 놀라운 것이었다. 주어진 주제와 문제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가 반드시 기반했다거나 모범답안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완전한 그대로 더욱 새로운 대안과 답변을 모색하기 위한 정겹다리 같은 무엇이었으며 참가자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문제에 자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여백이 주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다. 그 여백은 워크샵이 끝난 후 교육가가 자신의 조합원들과 함께 체우고 발전시킬 그러한 잠재력의 표현으로 생각되었다. 스스로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자유로움과 신뢰의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자신감의 표출은 참으로 부러운 것이었다.

‘살아 숨이는 집단적 창조에너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남아공 Dtsela 교육



이러한 자발성, 불완전성, 자유로움, 솔직함, 여백 등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무거운 주제를 강의 중심으로 풀어가는 대부분의 우리의 노동교육현장과 대비되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직접 접하면서 느낀 것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무엇을 위한 노동운동과 노동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생활의 한부분으로서 의문과 대안의 자유롭고 활기찬 공유를 통하여 교육활동이 전개되어야겠다는 것이었다. 노동교육은 아마도 노동교육 전문가에 의해 조직되기 보다는 노동교육 수요자가 스스로의 문제상황을 설정하고 자신의 대안과 답변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개발해가는 성격의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인종분리정책 하에서 투쟁해온 대부분이 혹인인 참가자들은 놀랄만큼 여유있고 당당하였으며 활기차고 생기있었다. 자신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자유와 힘에 대한 지금심인 듯하였다. 이러한 여유가 회의 진행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인지 워크샵의 마무리와 전년도 사업 평가도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워크샵의 합축성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 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는 느낌이었다. 항상 미완의 부분을 넘겨두고 그 미완이 더 큰 가능성으로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필자가 느낀 디첼라식 노동교육이었다.

SACP의 고민, "민주주의의 심화"

남아프리카 방문에서의 또 하나의 의미있는 만남은 COSATU가 주선한 만델라 정권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SACP(남아공 공산당) 사무차장인 제레미 크로너과의 면담이었다. SACP는 의회에서는 독자적 조직없이 집권당인 ANC의 한부분으로 활동하며 현재 5명의 장관, 2명의 차관, 총 400명의 국회의원중 80명을 배출하고 있다. 남아공의 노총격인 COSATU의 위원장, 제2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재정책임자가 모두 SACP의 당원이다. 이같이 남아공 권력 구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SACP는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과거 사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쇄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크로너의 설명이었다. 남아공 자본주의체제에서 차지하는 당의 역할에 대하여는 자본주의 하에서 나마 사회주의적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 을 꾀력하였다. 민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으나 시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적이고 강력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금은 소유권 문제보다는 발전과 구조전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위로부터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노조의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과거의 막스레닌주의와의 결별의 입장을 분명히 한 그는 그의 이러한 입장은



CUT



세계에서 노동운동을 선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노동조합회의 COSATU
브라질의 노동자운동중심 CUT 민주노총(KCTU)의 심볼마크

“민주주의의 심화”라고 표현해도 좋다고 하였다.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과 사회기금의 확대, 노조의 사회복지기금 운영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의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그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그의 관심은 남아공의 경제발전과 구조변혁, 민주주의의 추진이었다. 노동교육에 있어서 지금까지 소홀히 해 온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그의 발언에서 감지했다면 연상의 지나친 확장일까.

3국 연대 프로그램

11월 초의 한국, 남아공, 브라질 민주노총의 3국연대 프로그램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국제화학에너지노련의 지원하에 올해 이미 4번째 만나는 중요한 국제연대 회의이다. 3국은 이미 1995년 11월 한국 민주노총 결성시기에 서울에서 첫 모임을 가진 후 96년 남아

공, 97년 브라질에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프로그램은 노조와 공장, 기타 관련 기관의 방문, 그리고 3국 공동의 문제의식을 주제로 한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먼저 지금까지의 교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서울에서의 첫모임은 민주노총 출범식 참여, 포장마차에서의 소주를 걸들이 밤샘 뒷풀이, 울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 방문, 민노총과 본 연구소 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남아공과 브라질 대표들은 이외도 민노총 출범식의 장관과 열기에게 깊이 감동하여 한국노동운동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회의의 세미나는 각국 노사관계와 노조조직에 대한 정보 교환과 상호이해 증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96년의 남아공 회의는 남아공 민주노총인 COSATU, COSATU의 연구기관인 NALEDI, 노사정위원회인 NED-

LAC과 공장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경제상황 비교분석, NEDLAC의 역할과 기능, 에너지 광산부문에서의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등이 논의되었다. 교류의 강화를 위해 각국 노조들이 통신을 통해 노동상황 변화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97년의 브라질회의는 ABC 금속노조, 화학노조, 사옹파울로 금융노조, 노동문제 연구기관인 DIEESE, 노동자당(PT) 등의 방문과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세미나 주제는 세계화의 전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및 노조의 대응이었다. 각국 별로 정치경제상황과 노조의 활동을 설명하고 노동법에의 유연화 도입과 노조 구조 변화,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정책과 단체교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사정에 대한 사전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지적되었으며 연구소간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류의 수준을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3국연대 평가회의

필자가 참가한 이번의 독일 회의는 구동독지역 화학단지 방문과 바이엘, 다우케미칼 종업원평의회 간부들과의 토론회, 그리고 '세계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구성되었다. 종업원평의회 간부들과의 토론회는 대부분 노조와 평의회의 관계, 평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종업원평의회가 구상되고 있는 남아공 대표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남아공과 브라질 대표들의 구동독지역의 투자 유치 노력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자본의 노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질문에 노동자 평의회 간부는 실업률이 30%에 달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양보였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자본 투자와 고용, 고용과 노동계급의 생존이라는 연결 고리와 세계화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이론적 명제가 충돌하는 모습이 토론 중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세미나는 '세계화가 고용구조와 단체교섭에 미치는 영향', '고용창출과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제휴와 협력', '노동조합의 개혁과 국제노동조합 정책' 등이 소주제로 토의되었다. 확실히 이러한 공동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유용한 것이었다.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하면서 각국의 문제와 대응의 공통점과 차이점, 운동의 목적과 원칙, 전략의 선택에 있어 상호 참조지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묘수를 발견했다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공동의 모색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가 끝난 것이 약간 아쉬

운 대목이기도 하였다.

성과와 개선점

되돌아보면 3국 교류 프로그램은 노동 조합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해의 증진,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의 공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노동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 구기관들의 교류도 활성화되었으며 상호 연구결과를 교환하고 장래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논의도 점차 구체성을 띠어가고 있다. 또 이번 4차 회의에서 합의된 것처럼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노동운동의 장기전략의 개발과 국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논의구조 확대와 연관된 것도 큰 수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3국 연대회의의 보다 고 차원적인 발전을 위해 지양해야 할 점도 참가자들 사이에 허실단회하게 논의되었다. 사전준비 부족, 혹은 연대회의 이후 각 노총간 상호 교류의 지속성이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회의만 해도 한국측 참가자만이 발표문안을 영어로 준비하여 각국 대표단에 배포하였을 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발표문 없이 참고자료만을 보고 즉흥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대 경험의 축적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즉흥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많은

시간이 각국 상황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에 할애되어 이미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의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다. 각국 경제 상황과 노조조직, 단체교섭 현황 등 기본적 정보교류는 인터넷이나 기초적인 자료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상호방문과 회합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 미래의 전망에 관한 함축성, 공동 연대사업 아이디어의 교환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졌다.

세미나 진행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주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발언내용은 때로 이와 동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발언내용이 산만해지면서 집중성이 떨어지고 토론이 심화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다양한 화제가 제기되었으나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곧바로 다른 토론으로 이동하면서 일정 결론을 끌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 세계화에 대한 비판 등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장황하게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참가자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점이었는데 예를 들면 한 브라질 대표는 국제연대가 노총간의 의례적인 외교적 왕래 수준을 탈피해야 하고, 노동자 상대의 연설수준을 넘어서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를

다시 심화하고 향후의 3국연대 회의를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교류방식, 상호방문과 정보 및 의견교환이 더욱 심화된 형태로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회의가 끝난 후에는 국내의 당장의 문제해결 때문에 교류 촉진을 위한 합의 내용이 곧바로 잊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보다 상시적인 정보교환과 논의구조를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도 자연스런 결과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각국별로 장차의 교류를 위한 상호 지정된 상설 채널 즉 3국 교류 전담 조정관 (coordinator)을 두기로 하였다. 둘째, 보다 확실한 3국 연대사업을 확정짓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조정관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처지기 마련인 국제연대 사업의 중요성을 지도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도 참가자 모두가 공감하였다.

3국 교류와 연대의 발전은 노동운동이 점차 각국 특유의 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에서 세계화와 구조조정, 실업이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중요한 시점에서 더욱 심화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구체적 발전 방향으로는 다른 국제산별연맹이나 국제노조조직의 참가 허용 방안, 각국 노총을 각국이 속한 대륙에서 노동정보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는 방안, ICFTU 등 국제노동조직에서 3국이 공동의 보조를 취하는 방안등이 논의되었다. 실제로 네덜란드 노총인 FNV가 3국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지원하기를 희망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의 실현이 먼 것만은 아니라 는 점이 입증되었다.

더 많은 국제연대를

3국 연대사업은 각국 경제 상황과 당면한 노조 활동의 불가피한 상이성 때문에 대표들간의 얼굴 익히기와 기본적인 정보교류에 치중해왔다. 지금까지 필자는 이러한 교류의 피상성과 심화의 필요성을 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국제연대는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상호신뢰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정기 교류프로그램의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는 축적된 신뢰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이나 기타의 쌍무적 교류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과 브라질 남아공 간의 민주노총 위원장 상호방문이 제안되어 상호간에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그간 국제교류에 비교적 소홀해온, 보다 정확하는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민노총이 연대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점에서 우리 노동운동도 각 수준에서의 국제교류와 연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